

부모교육사 기초연구: 고등학생의 부모역할 기대

A Basic study on Plan of the parent Education Program:
High School Students' expectation of parental roles

영남대학교 가족학과
박사과정 조 승 희*
영남대학교 가족학과
박사과정 강 경 화
영남대학교 가족학과
박사과정 도 희 숙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Doctorial Course Cho, Seung Hee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Doctorial Course Kang, Keung-Hwa
Dept. of Home Management, Yeungnam University
Doctorial Course Do, Hee-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utually expected role of youth, centered on the youth of their earlier period in urban areas. For this attempt, 430 male students and 382 female students were selected as samples from high schools in Daegu City. So, this researcher clear up the specific branch of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is researcher is classified into 6 sub-categories under the titles of expected role through Factor Analysis. And Many students think the expectation of parental roles are more important of parents. Also, many students wish their parents to be concerned with them-their study,

* 교신저자 : 조승희 (E-mail: paoner@hanmail.net)

their conversation and communication, their emotional support, their daily life, their autonomy as well as trivial things.

주요어(Key Words): 부모역할기대(expectation of parental roles), 대화(conversation), 의사소통(communication), 정서적 지지(emotional support), 자율성(autonom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빠른 신체적 성장과 성적인 발달, 교우 관계망의 실질적인 확장, 인지 능력의 증대 등을 포함하는 놀랄만한 변화를 수반하는 시기이며(Jaffe, 1998; Pestrak & Martin, 1985), 발달과업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과 확대된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역할을 시도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며, 자아통합과 재통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며(Erickson, 1959), 사회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자기의 확장된 개념으로서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의 역할규정, 금기, 가능성 간의 교차점에서 파생된 유기적인 심리적 구조이기도 하다(Erickson, 1968).

Friedenberg는 개인의 정체성은 청소년이 부모 및 다른 권위적 인물과의 갈등을 경험함으로써 발달한다고 보았다. 청소년은 그들을 복종하게 하려는 사람들과 갈등을 겪음으로써 자신의 개성과 독립을 주장하면서도 이상과 행동 간의 불일치를 드러내는 시기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부모자녀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서로의 역할기대에 대한 불일치가 있게 되면 갈등은 더욱 증폭된다. 특히, 오늘날 얼굴과 얼굴을 맞대던 일차적 관계에서 컴퓨터를 매개로 한 관계로 대체되고 있고(Pipher, 1996), 청소년들이 가정적 문제나 개인적 문제를 부모와는 다르게 본다는 점이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의 원천으로 작용된다(최외선 외 공저, 2006)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관계는 양가적이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들이 부모에게 매우 의존적이라는 사실 사이에서 계속적인 긴장을 경험한다. 또한 많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 토로한다(Holmbeck & Hill, 1991; Steinberg, 1988a). Smetana(1989a)는 청소년이 접하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부모와의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집안일 하기,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행동이나 개인 간의 관계에 대해 규제하기, 외모, 숙제 하기’ 등이 포함된다.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 간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로는 개인의 소유물, 가족에 대한 의무, 시간 사용, 정서적 지지, 이성교제, 이데올로기 등이 있다(Hall, 1987). 또한 빈약한 의사소통과 갈등해결기술을 가진 가정은 특히 부모-청소년 자녀간에 심한 갈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에 더 많이 직면하게 되고, 청소년 자녀는 비정상적인 또래집단의 영향을 받고, 마약에 빠지며, 가출하고, 학업을 포기하며, 비행에 저지를 위협이 많다(Ge, 1996; Hall, 1987). 한편으로 상호간의 지지와 소속감을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에게 서서히 자율을 허락하는 가정이 세대 간의 갈등을 적게 겪게 된다. Stefanko(1987)는 부모와 청소년이 상대방에 대해 서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빛나간 견해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학업문제, 이성문제, 진로문제 등 새로운 적응문제에 당면되기 때문에 극단적이며 과격해 진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들이 청소년의 부적응이나 불안정함에 대한 고정관념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Adelson, 1979; Offer, 1987).

최근 한국 청소년들이 갖는 행동적 문제로는 크게 발달과업과 관련된 ‘학업 및 진로문제’,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가족, 또래, 교사와의 관계’, 청소년기 주요 품행문제로서 ‘비행과 공격적 행동’, 최근 청소년들의 생활습관에서 나타나는 문제로서 ‘인터넷 중독과 섭식문제’가 청소년기의 주요문제행동으로 간주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3; 이해경, 신현숙, 이경성, 2003;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 청소년들이 문제행동 상황으로 유도되는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속해있는 가족에 있고, 이러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도 가족임이 지적되고 있으며(김준호, 199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가족 기능에 따라 학교적응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이혜령, 2000),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배숙진, 1998)등을 볼 수 있다. 청소년을 잘 키운다는 것이 부모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여전히 청소년은 부모의 지도와 격려를 원하고 있다. 더욱이 아동기까지와는 달리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세대 차이로 인해, 또는 부모의 권위가 예전과 같이 절대적으로 자녀에게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청소년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행동양식이 다른 사람과의 행동양식에서 나타난다. 즉 가정에서의 가족원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작용 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심각한 가정 불화, 자녀에 대한 무관심 혹은 과도한 기대, 부적절한 양육태도 같은 상황은 청소년들의 발달을 위협하여 가정의 실패는 곧 학교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류경희, 2003). 지금까지 연구된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변인들 중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역할 행동(황영은, 도현심, 2004; Ruter & Conger, 1995),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 방식(김수연, 정문자, 1997; 노성향, 1994; Montemayor, 1982) 및 청소년들의 성격특성(Barber, 1994), 가족기능에 따라 학교적응(이혜령, 2000),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배숙진, 1998),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만족감, 의사소통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기술(김순옥, 송현애, 1998)등으로 부모자녀간의 갈등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이 있다는 것을 일관성있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부모들 스스로도 자녀의 기본생활교육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정현아, 1994), 최상으로 기능하는 가정은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일관성있는 부모에 의해 이루어진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모역할기대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갈등 및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정준기, 1985), 중등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바라는 역할기대에 관한 조사연구(김영순, 1986), 부모자녀의 역할기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김관식, 1988),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나종완, 1990)가 있으며, 최근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므로 부모역할기대에 대해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부모교육사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1.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본다.
2. 환경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대구 수성구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14일~3월 20일에 걸쳐 자율학습시간에 검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응한 전체대상은 총 840명이며, 이중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자료처리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812부(남 430명, 여 382명)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N=812

변 인	구 분	N	(%)	변 인	구 분	N	(%)	
성별	남	430	53.0	부 직업	자영업	162	20.3	
	여	382	47.0		회사원	185	23.1	
계열	인문계	658	81.7		공무원	119	14.9	
	자연계	147	18.3		사업	105	13.1	
부 연령	45세미만	226	28.0		전문직	127	15.9	
	45~50세	451	56.0		기술자	43	5.4	
	51세이상	129	16.0		기타	59	7.3	
모 연령	45세미만	475	58.9		가족형태	핵가족	697	85.4
	45~50세	282	34.9			확대가족	78	14.6
	51세 이상	50	6.2		부 만족도	불만	100	12.5
부 학력	고졸이하	213	26.7	만족		701	87.5	
	대졸이하	434	54.3	모 만족도	불만	63	7.8	
	대학원이상	152	19.0		만족	742	92.2	
모 학력	고졸이하	346	43.3	형제만족도	불만	88	11.4	
	대졸이하	398	49.7		만족	684	88.6	
	대학원이상	56	7.0	친구만족도	불만	41	5.2	
월수입	100만원미만	103	14.2		만족	754	94.8	
	100~200만원 미만	195	26.7	가정생활 만족도	불만	93	11.7	
	200~300만원 미만	210	28.8		만족	701	88.3	
	300만원 이상	221	30.3	학교생활 만족도	불만	116	14.6	
모 직업	유	348	43.6		만족	681	85.4	
	무	450	56.4	용돈만족도	불만	190	24.4	
					만족	588	75.6	

* 무응답을 결측치로 처리하였으므로 사례 수에 다소 차이가 있음.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53.0%, 47.0%로 비슷하며, 인문계가 81.7%로 자연계보다 많다. 부 연령은 45~50세 사이가 56.0%이고, 모 연령은 45세 미만이 58.9%으로 많았다. 또한, 부 학력에서 대학원 이상이 19.0%, 모 학력에서는 대학원 이상이 7.0%로, 대부분이 대졸로, 높은 학력을 볼 수 있었다. 어머니가 직업을 가진 경우가 43.6%로 많은 편이며, 가족형태는 핵가족 85.4%로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부, 모, 형제, 친구, 가정생활,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모두 85%이상으로 높은 편이나, 용돈만족도는 75.6%로, 다른 만족도에 비해 약간 떨어지는 수준을 보였다.

2. 연구도구

1)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계열, 부모님의 연령, 부모님의 학력, 월수입, 부모님의 직업, 가족형태, 생활에 대한 만족도(부 만족도, 모 만족도, 형제만족도, 친구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용돈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모역할 기대 척도

부모역할기대척도는 앞에서 거론한 선행연구들(김관식, 1988; 김영순, 1986; 나종완, 1990; 정준기, 1985)과 청년기 부모 교육사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최외선, 여순옥, 2005)를 참고로 하여 6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역할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30$ 이며, 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표 2>와 같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기대의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 부모역할기대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

요 인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전체
Cronbach's Alpha	.858	.836	.819	.774	.847	.795	.930
문항 수	11	9	10	10	5	9	54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였으며, 부모역할기대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여섯 요인으로 추출하고, 요인부하 값이 .30이하인 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54문항을 추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는 문항 간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를 구하였다. 환경 변인(개인변인, 부모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부모역할기대척도의 요인구조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 척도의 요인구조는 <표 3>, <표 4>와 같다.

<표 3> 부모역할기대의 요인구조

요인명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고유치	5.46	4.30	4.19	3.79	3.63	3.16
분산 설명변량(%)	10.12	7.79	7.77	7.02	6.72	5.85
누적 설명변량(%)	10.12	17.92	25.69	32.71	39.44	45.29

<표 3>에 의하면, 요인1은 11문항으로, 고유치는 5.46이며, 설명변량은 10.12%이다. 요인1은 학습문제와 대학진학, 적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학업 및 진로'로 명명하였다. 요인2는 9문항으로, 고유치는 4.20이며, 설명변량은 7.79%이다. 주로 의사소통과 수용, 존중감에 관련된 내용으로 '대화 및 의사결정'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10문항으로, 고유치는 4.19이며, 설명변량은 7.77%이며, 관심, 상담자의 역할, 문제에 대한 해결, 심리적인 지지에 관한 내용으로 '정서적 지지'로 명명하였다. 요인4는 10문항으로서, 고유치는 3.79이며, 설명변량은 7.02%이다. 흡연, 인터넷사용, 식습관, 취미에 관련된 내용으로 '생활습관'으로 명명하였다. 요인5는 5문항으로 고유치는 3.63이며, 설명변량은 6.72%이며, 종교단체나 동아리에서의 이성교제에 대한 개

<표 4> 부모역할기대척도의 요인별 내용과 문항

요인	요인명	문항 내용	요인 부하량		
1	학업 및 진로 (11문항)	22 부모님이 나의 취미 생활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657		
		21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641		
		20 내가 나의 말이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621		
		26 부모님이 나의 학습이외의 다양한 활동(취미, 여가)을 허용해주시기를 바란다.	.594		
		34 내가 인터넷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587		
		19 내가 결정한 것을 부모님이 지지해주시기 바란다.	.568		
		29 부모님이 나의 대학진학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해주시기를 바란다.	.535		
		24 부모님이 나의 적성과 특기를 개발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514		
		38 내가 인터넷 사용을 절제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513		
		36 내가 인터넷사용으로 인해 학교생활이나 성격에 지장이 없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513		
		25 부모님이 내 성격이 나쁘더라도 격려해 주시기 바란다.	.507		
		2	대화 및 의사 결정 (9문항)	14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655
				10 부모님이 나의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619
15 부모님이 나의 있는 그대로를 수용해 주시기 바란다.	.614				
12 부모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	.600				
16 부모님이 나를 형제, 자매와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582				
13 부모님과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574				
18 나는 가족들 간에 대화가 잘 되기를 바란다.	.520				
2 부모님이 내가 친구들과 결정한 일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472				
1 부모님이 내 친구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란다.	.465				
3	정서적 지지 (10문항)	27 부모님이 나의 학교생활에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란다.	.694		
		3 내가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부모님이 상대방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663		
		28 부모님이 내가 대인관계(친구, 교사 등)에서 원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603		
		11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님이 곁에 있어 주시기를 바란다.	.595		
		56 내가 스트레스(두통, 짜증, 불안, 건강증)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565		
		23 부모님이 나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548		
		9 부모님이 나의 이야기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547		
		48 부모님이 영화, 연극, 문화생활 등에 나와 함께 가지시기를 바란다.	.538		
		31 내가 성에 관련된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514		
		17 부모님이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시기를 바란다.	.447		
4	생활 습관 (10문항)	39 내가 건전하지 않은 사이트(사설, 엽기 사이트 등)에 호기심을 가질 때, 부모님이 지나치게 반응 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557		
		41 부모님이 내가 답배피우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543		
		37 인터넷 채팅을 통해 친구사귀는 것을 부모님이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	.528		
		63 내가 영화, 텔레비전의 폭력적인 영상물을 보는 것에 대해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516		
		62 부모님이 나의 잠자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495		
		46 내가 인스턴트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482		
		40 부모님이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475		
		35 내가 인터넷을 할 때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469		
		30 내가 성에 관한 책이나 드라마, 영화를 보는 것을 부모님이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	.443		
		33 내가 인터넷(게임)을 하는 것을 부모님이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	.442		
5	이성문제 (5문항)	5 부모님이 나의 이성교제에 대해 개방적이시기를 바란다.	.752		
		6 부모님이 나의 이성교제가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740		
		4 부모님이 나의 이성 친구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719		
		8 부모님이 내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이성친구와 사귀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	.677		
		7 부모님이 내가 종교단체를 통해 이성친구와 사귀는 것을 허용해 주시기 바란다.	.640		
		6	자율성 (9문항)	50 부모님이 나의 자원봉사 활동을 간섭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690
				49 부모님이 나의 종교 선택을 간섭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657
59 부모님이 나의 다이어트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639				
54 내가 과외공부나 교육용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507				
60 내가 거친 말이나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504				
55 내가 휴대폰이나 유선전화를 절제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465				
53 내가 용돈을 계획성 있게 쓰고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442				
57 내가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란다.	.379				
51 부모님이 나에게 집안의 경제사정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358				

방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성문제’로 명명하였다. 요인6은 9문항으로 고유치는 3.16이며, 설명변량은 5.85%이며, 종교의 선택, 휴대폰 및 용돈의 사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자율성’로 명명하였다. 부모역할기대 척도의 전체 설명변량은 45.29%이다.

2. 환경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의 차이

환경 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인변인으로 성별, 계열, 모 만족도, 부 만족도, 형제만족도, 친구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용돈만족도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변인으로는 부 연령, 모 연령, 부 학력, 모 학력, 월수입, 부 직업, 모 직업, 가족형태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부모역할기대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s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1) 개인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의 차이

개인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는 성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t=-5.023$, $p<.001$),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학업과 진로($t=-4.507$, $p<.001$), 대화와 의사결정($t=-5.287$, $p<.001$), 정서적 지지($t=-9.197$, $p<.001$), 이성문제($t=-2.163$, $p<.05$), 자율성($t=-2.831$, $p<.05$)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과 진로, 대화와 의사결정, 정서적 지지, 이성문제, 자율성에 대한 부모역할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에 있어서는 대화 및 의사결정($t=-2.028$, $p<.05$), 정서적 지지($t=-3.636$, $p<.001$), 생활습관($t=2.729$,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대화 및 의사결정과 정서적 지지에서는 자연계($M=3.46$, $M=3.09$)가 인문계($M=3.37$, $M=2.91$)보다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았으며, 생활습관에서는 인문계($M=2.61$)가 자연계($M=2.49$)보다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모 만족도에서는 정서적 지지($t=-5.064$,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집단($M=2.98$)이 불만인 집단($M=2.48$)보다 정서적 지지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 만족도에서는 정서적 지지($t=-4.461$,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집단($M=2.99$)이 불만인 집단($M=2.66$)보다 정서적 지지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형제만족도에서는 정서적 지지($t=-2.850$,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집단($M=2.96$)이 불만인 집단($M=2.77$)보다 정서적 지지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만족도에서는 생활습관($t=-2.131$,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친구에 대해 불만인 집단($M=2.77$)이 만족하는 집단($M=2.58$)보다 생활습관에 대한 부모역할기대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생활만족도에서는 정서적 지지($t=-4.653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만족하는 집단($M=2.99$)이 불만인 집단($M=2.62$)보다 정서적 지지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돈만족도에서는 학업 및 진로($t=2.301$, $p<.05$), 정서적 지지($t=-2.323$, $p<.05$), 생활습관($t=4.78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용돈에 불만인 집단($M=3.38$, $M=2.76$)이 만족하는 집단($M=3.29$, $M=2.74$)보다 학업 및 진로와 생활습관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았으며, 용돈에 만족하는 집단($M=2.97$)이 불만인 집단($M=2.86$)보다 정서적 지지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았다.

2) 부모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의 차이

부모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는 모 연령에 있어서 학업 및 진로($F=3.00$, $p<.05$), 정서적 지지($F=7.43$, $p<.001$)와 전체($F=3.26$,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학업 및 진로에서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적 지지와 전체에서 모 연령이 45세 미만인 집단($M=3.01$, $M=3.02$)이 45~50세 미만인 집단($M=2.85$, $M=2.95$)보다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모 직업에 있어서는 자율성($t=2.35$,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모 직업이 있는 집단($M=2.92$)이 모 직업이 없는 집단($M=2.82$)보다 자율성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았다.

부 연령, 부 학력, 모 학력, 월수입, 부 직업, 가족형태에 있어서는 부모역할기대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요인을 분석해보고, 개인변인에 따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의 차이와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기대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부모교육사의 기초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대구 수성구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학생을 대상으로 2006년 3월 14일~3월 20일에 걸쳐 조사 실시한 연구의 자료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고등학생의 부모역할기대는 학업 및 진로, 대화 및 의사결정, 정서적 지지, 생활습관, 이성문제, 자율성 등 6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학업 및 진로 요인은 학습과 인터넷 사용, 대학 진학, 적성과 특기에 관련된 내용이다. 민하영 외(2004)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6학년의 학교적응은 부모의 양육행동이 지지적일 때,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박소혜(1995)와 최지은·신용주(2003)는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는 연구로 부모와의 관계가 '학업 및 진로'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화 및 의사결정 요인은 의견충돌 시, 부모님의 태도, 수용력, 신뢰, 대화방식, 결정력에 대한 내용이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청소년기 자녀의 역할과 자아정체감형성, 도덕성 발달,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인 이유 등 인성이나 행동발달 및 성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민하영, 1991)에서 언급하듯이 중요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정서적 지지 요인은 학교생활에 관한 관심, 대인관계문제, 심리적문제에 관한 내용이며, 청소년의 정체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생활습관 요인은 흡연, 술, 텔레비전, 책 등으로 일상적이고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요즘에 부각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성문제 요인은 성행동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성인으로 나아가는 데에 필수적이면서 책임감을 요구하므로 중요한 요인으로 추출된 것으로 생각한다. 자율성 요인은 자율을 향한 청소년의 노력은 부모로부터의 분리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애착 과정의 새로운 단계이며, 부모에게 안정적으로 애착된 청소년은 대체적으로 자신의 독립추구를 부모가 정서적으로 수용해 주며 지지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Ryan & Lynch, 1989)는 연구로 보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개인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기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활습관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가 부모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김지혜, 1998; 류경희, 2003)들이 뒷받침을 해주며, 여학생이 부모에게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는 것은 남학생보다 생활습관에 대한 것은 스스로 해결이 가능하나, 언어적 상호작용과 친밀감을 더욱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열에 있어서는 자연

계가 인문계보다 대화와 의사결정에 대한 부모역할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문계 학생들보다 부모와 가지는 시간이 부족하고, 의사소통기술 능력이 인문계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 성취의 격려, 공동의사결정 등의 특정한 부모의 양육 행동은 청소년의 특성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 연구(Brown, Mounts, Lamborn, & Steinberg, 1993)와 같이 상호적인 의사소통기술을 익혀갈 필요가 있다. 부 만족도, 모 만족도, 형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정서적 지지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은 것은 가족와의 의사소통, 애정, 신뢰를 지속시키고 동시에 부모와의 분화된 관계를 추구하게 되는 것(Quintana & Lapsley, 1990)으로 청소년은 여전히 자신들이 가정의 일부이며, 부모와는 서로에 대한 정서적인 헌신을 계속 기대하는 것(Newman, 1989)으로 추정된다. 친구만족이 높은 집단이 생활습관에서 부모 역할기대수준이 높은 것은 고등학생 시기는 공동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Hortacsu, 1989)이므로, 인기를 얻기 위해 부모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용돈 만족도에서 학업 및 진로와 정서적 지지, 생활습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경제적 요소가 심리적 요소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기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 연령에서는 45세 미만인 집단에서 정서적 지지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았으며, 51세 이상의 집단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학업 및 진로, 생활습관, 자율성에서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으며, 대화 및 의사결정, 정서적 지지, 이성문제에서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가 낮고, 현실적 생활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모 직업에서는 자율성에 대한 부모역할기대수준이 높았으며, 이것은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전업주부보다 자녀들에게 소홀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자녀들의 일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가족 기능은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같은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을 요구하므로 가족 내 역할이 더욱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부모는 청소년 자녀의 발달과업인 정체감 형성을 도와주기 위해 상담자, 학업 및 진로지도자, 갈등조정자, 성적 성숙에 대한 수용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것이다(최외선 공저, 2006). 양육이라는 용어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유안진, 1999)을 반영하므로, 청소년 자녀들의 부모역할기대를 파악한 본 연구는 원만한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기대에 관한 질문지만을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측정하거나 면접을 통해 심층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결과를

고등학교 전체의 기대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화하기가 힘들다.

둘째, 후속연구에서는 부모역할기대와 수행정도, 그리고 부모-자녀간 갈등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관식(1988). 부모자녀의 역할 기대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정문자(1997). 어머니-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에 관련된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35(3), 181-192.
- 김순옥, 송현애(1998).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및 효율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3(1), 93-119.
- 김영순(1986). 중등학교 학생들이 그들의 부모에게 바라는 역할기대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혜(1998). 청소년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인숙 외(2000). **부모교육**. 서울: 창지사.
-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중완(1990). 학생들의 부모에 대한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1(12), 147-168.
- 민하영,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 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혜(1995). 초등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가정의 심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10(1), 139-165.
- 신현숙, 이경성, 이해경(2003). 청소년 부적응 문제에 대한 부모와 청소년의 평가. **한국교육학회**, 41(4), 1-23.
- 유안진(1999).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문음사.
- 정준기(1985). 부모-자녀 간 갈등 및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공주사범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편역(2004). **청소년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최외선, 여순옥(2005). 청년기 부모 교육사 교과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부모교육학회 자료집**. 35-65.
- 최외선 공저(2006). **부모교육**. 서울: 양서원.
- 최지은,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황영은,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모-자녀 간 갈등과 남녀 청소년의 개체화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2), 133-154.
- Adelson, J.(1979, February). Adolescence and the generalization gap. *Psychology Today*, 12, 33-37.
- Barber, B. K.(1994). Cultural, family, and personal contexts of parent-adolescent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375-386.
- Brown, A.(1993). Whither Cognitive Development in the 1990'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Norton.
- Hall, J. A.(1987). Parent-Adolescent Conflict. An Empirical Review. *Adolescence*, 22, 767-789.
- Hortacsu, N.(1989). Target Communicat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12, 253-263.
- Jaffe, M. L. (1998). *Adolescence*. NY: John Wiley.
- Montemayor, R. (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 *Child Development*, 53, 1512-1519.
- Newman, B. M.(1989). The Changing nature of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from Early to Late Adolescence. *Adolescence*, 96, 915-924.
- Offer, D. (1987, February 3). Smooth adolescence (quote). *The New York Times*.
- Pesttrak, V. A., & Martin, D.(1985). Cognitive development and aspects of adolescent sexuality. *Adolescence*, 20(80), 981-987.
- Pipher, M. (1996). *The Shelter of Each Other: Rebuilding Our Families*. New York: Grosset/ Putnam Books.
- Quintana, S. M., & Lapsley, D. K.(1990). Approach in late Adolescent Separation-Individuation: A Structure Equations Approach. *Journal of Adolescence*, 13, 371-385.
- Ruter, M. A., & Conger, R. D.(1995). Antecedents of parent-adolescent disagreem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435-449.
- Smetana, J.(1989). Adolescent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63-1064.